

30. 운명적(運命的) 군사기지 모슬포(慕瑟浦)⁵⁹⁾

◎ 무장(武裝) 일(日) 어부(漁夫)들과 맞서 싸운 이만송

(李晩松)

◎ 6·25 때는 국토 회복의 배양기(培養基)가 되고

50~60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슬포(慕瑟浦)는 젊은 한 시절의 잊을 수 없는 회억(回憶)의 땅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10만(萬) 대군(大軍)의 강병대(强兵臺)

6·25를 치르는 동안 이 모슬포는 국군을 생산해내는 배양기(培養基)였다. 국군과 유엔군이 공산군에 쫓겨 우리 국토가 낙동강(洛東江) 남쪽 한 귀퉁이로 몰렸을 때 국토 회복의 힘이 바로 이곳에서 길러졌기 때문이었다.

59) 『한라일보』 제184호 (1989. 11. 25).



18세기 초의 모슬진성(慕瑟鎭城) | 이 그림은 당시 목사였던 이형상(李衡祥)이 대정읍(大靜邑)을 출발 모슬진에 이를 때의 그림이다. 당시 성의 위치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곳에 육군 제1훈련소(訓練所)가 창설된 것은 6·25가 일어나던 이듬해인 1951년 3월이었다. 이때부터 1955년 1월 육군제주경비사령부가 들어설 때까지 5년에 걸쳐 이곳은 훈련소가 자리했다. 이른바 강병대(强兵臺)로 널리 알려졌던 곳이다.

그때는 적어도 수만에서 많을 때는 십여 만의 군인들이 이곳에 주둔해 있었다. 5년 사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나간 20대 안팎의 장정은 수십만, 면회나 그밖의 일로 이곳을 거쳐간 사람은 아마도 수백만에



강병대 교회(대정읍 상모리) | 1952년 5월 당시 육군 제1훈련소 소장이었던 장도영이 기공하여 4개월여 만에 완공함. 2002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되었다.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강병대의 인상이 생생하게 남아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은 행정구역상 상모리(上募里)와 하모리(下募里)로 나누어 있지만 원래는 한 마을이었다. 모슬포는 ‘모슬개’에서 생겨난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부터가 우리나라의 남단에 위치해 있지만 모슬포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남단에 위치한 포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때문인지 모슬포는 예로부터 외환(外患)에 가장 노출돼 있는 마을이었다고 보며 그만큼 또 일찍부터 군사적 중요성이 강조돼 온 곳이기도 했다.

고려 때부터 모슬포 근해에는 이미 외국 선박들이 표도하기 시작했으며 14세기부터는 왜구(倭寇)가 벌써 넘보기 시작한 곳이었다.

모슬포에 방호소(防護所)가 설치되고 본격적인 방어 시설을 갖추게



↓ 제주 구 육군 제1훈련소 지휘소(대정읍 상모리) ↓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건립함. 1951년 1월 제주에서 창설된 육군 제1훈련소의 지휘소. 강병을 육성한다 하여 강병대라고도 함. 2008년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409호로 지정되었다.

된 것은 1678년(숙종 4) 이었다. 그때까지 대정현(大靜縣) 월평(月坪) 지경에 있던 동해방호소(東海防護所)를 철수시켜 이곳 모슬진(募瑟鎭)으로 옮기게 하고 바다에 면해서 석성을 쌓았다. 둘레가 3백 35척, 높이가 12척이었고 동문성상에는 누각을 세웠다. 3면이 바다에 면하고 오직 한 곳만 물으로 이어지게 하여 암반 위에 성을 쌓았으므로 방어에는 다시없는 요새가 되었다. 그러나 성내에는 샘이 없는 게 큰 흠이었다.

성내에는 객사(客舍), 군기고(軍器庫) 등을 설치하고 조방장(助防將) 1인, 치총(雉撾) 2인, 서기(書記) 7인, 방군(防軍) 89인, 방포수(防砲手) 3인, 궁인(弓人) 3인, 시인(矢人) 3인, 성정군(城丁軍) 70인과 사후선(伺候船) 1척을 두었다.

19세기 말엽부터는 일본어부들이 제주도 근해를 침범하기 시작했다. 이때 모슬포 근해는 바로 그들의 대표적 침략 무대로 등장한다. 일



↑ 알뜨르 비행장(대정읍 상모리) | 일본 해군이 1931년부터 건설. 1937년 중일전쟁 때 난징 폭격기지로 사용되었고, 1945년 일본 본토결전 작전 준비 비행장으로 이용되었다.

본의 어업 침범은 고기만 잡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불법 상륙하여 식량이나 가축을 약탈하고 부녀자 강간, 인명 살상까지도 함부로 하였다.

이 무렵부터 도내 여러 곳에서는 그들과 도민들 간에 충돌 사건이 일어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첫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다.

일(日) 어선(漁船)들 몰려와

『고종실록(高宗實錄)』 등 당시의 자료를 조사해보면 1887년(고종 24) 8월 가파도(加波島)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던 잠수기선(潛水器械船) 6척이 모슬포에 기항 어부 40여 명이 무단 상륙했다. 이 무렵의 일본 어부들은 처음부터 모두가 무장을 하고 있었다.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현재 19기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 중 10기가 2002년 국가 등록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다.

그들이 마을 사람들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마구 닭과 돼지 등을 약탈해 가도 총검이 무서워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때 보다 못한 집주인 이만송(李晩松)과 몇 사람의 청년들이 항거하고 나섰다.

이만송은 원래 담력 있고 장사였으므로 같은 조건에서 싸운다면 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장검(長劍)을 빼들고 때 죽으로 물려들었다. 몇 놈을 삽시에 때려 눕혔지만 그들이 집단으로 휘두르는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다. 마침내 이만송은 일본 어부들의 칼에 온 몸이 난자당하여 무참히 죽었다.

이때 함께 항의하던 마을 사람 김성만(金成萬), 정종무(鄭宗武), 이흥복(李興福) 등 세 사람도 그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사람까지 죽여 큰 사건을 저지른 그들은 장차의 어업 활동을 의식했는지 모슬진 기찰장(議察將) 문재욱(文才旭)을 위협하여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화

해서까지 강제로 받아내고 철수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제주목사 심원택(沈遠澤)의 보고를 받고 정부가 일본 공사(公使)에게 엄중 항의하는 한편 배상금을 청구하는 외교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모슬포 일대는 제주도에서는 고산 지역과 함께 가장 넓은 들로서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일어나자 일군(日軍)은 이곳에 군용 비행장을 시설하였다. 오오무라(大村) 해군 항공대가 주둔하고 전쟁 초기에는 한때 중국 본토로 출격하는 비행기지가 되기도 하였다.

2차전(次戰) 때는 일군(日軍) 기지(基地)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 뒤로도 이 일대는 일군이 계속 주둔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군의 중요한 군사기지가 되었다. 지금도 이 일대에서는 일군이 구축해 놓은 수많은 참호와 동굴, 그리고 위장격납고 등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방이 되고 전국에서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던 1946년에는 일군이 닦아온 이 터전에서 제9연대(聯隊)가 창설되었다. 초대 연대장에는 장창국(張昌國) 부위(副尉)가 취임하였다. 그 뒤로 이치업(李致業) 소령, 김익렬(金益烈) 소령, 박진경(朴珍景) 중령, 최경록(崔慶祿) 중령, 송요찬(宋堯讚) 소령으로 이어진다.

4·3 사건이 일어나던 1948년을 전후하여서는 이 연대본부가 바로 우리 민족 미증유의 역사적 사건을 좌우하는 사령탑이 되기도 하였다.

모슬포는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환과 수난의 땅이기도 했

지만 처음부터 군사기지로 시종한 땅이기도 했다. 이 땅에 영원한 평화
화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단언은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모슬포가 타고난 지세(地勢) 때문이요,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
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알림]

필자의 사정으로 ‘사연따라 칠백리’는 당분간 휴재(休載)했다가 새
해부터 다시 연재하기로 하겠습니다.